

성찬예배 해설 18

소입당 (2022.1.30)

성찬예배에서 안티폰이 끝나면, 성당 안에서 거룩한 행렬이 이루어집니다. 이 행렬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룩한 복음경이 앞으로 나옵니다. 행렬은, 그 중심에 복음경이 놓여있는 거룩한 제단에서 시작하여, 성당 중앙으로 나와 신자들 곁을 지나고, 다시 거룩한 제단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소(小)입당’이라 부릅니다. 소입당은,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때 우리 모두의 마음과 주의는 복음경, 즉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향합니다. 지성소 안에서 사제는 복음경에 경배하고 입맞춤한 뒤 그것을 보제에게 전달하고, 보제는 복음경을 얼굴 높이로 들어 얼굴을 가린 채 행렬하는데, 이것은, 지금 오시는 이가 바로 그리스도 당신이심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행렬에서 제일 앞에는 초가 위치하는데, 이 초는 선구자 요한을 상징합니다. 복음사가 요한이 말했듯이, “(선구자) 요한은 환하게 타오르는 등불이었”고(요한 5:35), 그리스도께서 오시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온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세상 역사에 들어오시며 인간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인(神人)적 생명과 자신의 생명을 연합시키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거룩한 복음을 맞아들입니다.

사제는 소입당을 하면서 성당 한가운데에 도착하면, 다음과 같이 ‘입당 기도’를

올립니다. “주 우리 하느님이시여, 주는 하늘의 천사와 대천사의 품계와 군대를 세우시어 주의 영광을 받들게 하셨으니 그들로 하여금 우리와 같이 입당하여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의 선하심에 영광을 드리게 하소서.”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특히 그리스도께서 직접 성체성혈 성사를 집전하시는 성찬예배에서, 그리스도는 수많은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계시기 때문입니다. 스피리톤 성인은 거룩한 천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았는데, 이와 유사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후의 설교들에서 보게 되듯이, 천사들의 찬송이 성찬예배에 포함되어 불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에 넘쳐 다음과 같이 찬송합니다. “천사들은 기뻐하고, 땅도 기뻐한다. 오늘 참으로, 천사들과 사람들이 한 목자의 양 무리들이 되었다.”(12월 30일 만과 테오토키온) 정말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높이 들어올리셨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입당 기도’ 이후, 사제(주교)는 집전자들의 소입당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제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복음경을 들어올리면서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이는 곧 하느님의 지혜이나니, 경건한 마음으로 설지어다.” 사도 바울로가 기록하듯, “우리가 선포하는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며 하느님의 지혜입니다.”(1고린토 1:24 참조) 우리 모두는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준비된 마음과 깨어 있는 마음을 가지고, ‘경건한 마음으로 서서’ 거룩한 복음경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던 갈릴래아와 유다의 도시 사람들과 마을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럼 말입니다. 복음사가들은 종종 다음과 같이 언급하는데, 이는 아주 특징적입니다. “예수께서는 기도하시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러나 여러 동네에서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육로로 따라왔다.”(마태오 14:13 참조)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복음경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 이유로 모든 신자들은 자발적으로 거룩한 복음을 향해 경건하게 절하고 십자 성호를 그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모두 가까이와서 그리스도께 경배합시다.”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부활하신 하느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구원주소서. ...”라는 찬송을 부릅니다. 정말이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저를 구원주소서!” 또는 “저를 불쌍히 여기주소서!”라고 예수님께 간청하여, 주님의 기적적인 도움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구를 먼저 언급해야 할지 모를 정도입니다. 티베리아의 폭풍우에 익사할 뻔 했던 열두 제자의 경우가 그 한 사례입니다. 제자들은 익사할 위기에 처했던 그때 “주님, 살려주소시오.”라고 부르짖었고,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에 내리신 명령에 따라 “사방은 아주 고요해”졌습니다.(마태오 8:23-26 참조) 거룩한 복음과 우리 교회의 역사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간청하는 사람들의 요청에 주님께서 응답하신 유사한 기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복음경이 입당하는 길을 통해, 성당의 지성소에 입당하십니다. 이는 아들이신 하느님의 말씀이, 오류 없는 스승으로서 세상에 오심을 드러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요한 14:6)라고 하시며 그

것을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이를 직접 들은 제자들은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참 하느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임을 믿고 또 압니다.”(요한 6:68-69 참조) 또, 예수님의 원수들의 경우를 통해서 목격한 증언도 있습니다. 원수들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동안, 예수님을 잡으려고 경비병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잡으려고 온 경비병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움에 사로 잡혀서, 자신들이 받은 명령을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듯이, “성전 경비병들이 그대로 돌아온 것을 보고 대사제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를 잡아오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경비병들은 ‘저희는 이제까지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요한 7:45-46 참조)

바로 이 유일하신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경이 입당할 때 나타나십니다. 성찬예배의 첫 부분은 예비교인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까지인데, 이 첫 부분은 하느님의 말씀이 주가 됩니다. 주님께서 처음 세상에 나타나셔서 자신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후에 불명예스러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성찬예배에서 그분은 먼저 복음을 전하는 스승이자 설교자로 나타나시고, 그 후에 당신의 거룩한 몸과 피의 희생 제사를 드리는 집전자로 나타나십니다. 즉, 성찬예배의 순서는 이렇게 주님께서 지상에서 사셨던 삶을 그대로 따라갑니다.